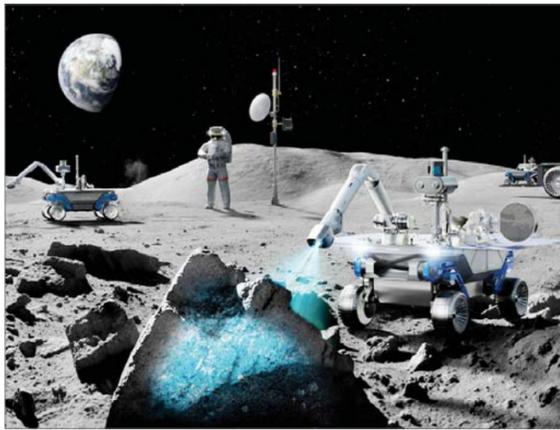


↑ 코스피	2524.39	↑ 코스닥	855.61
	(+22.86)		(+12.78)
↑ 금리 (미국 9년)	3.335	↑ 환율 (원/달러)	1342.10
	(+0.042)		(+4.40)



## 완성차 '미래 모빌리티' 승부... 육해공서 우주로 확장

2040년 우주산업 1383조 전망  
글로벌 차세대 기술경쟁 본격화  
GM·도요타 이어 현대차그룹  
달 탐사용 로버 연구개발 착수  
혼다·포르쉐, 저궤도 위성 집중



현대자동차 달 탐사 로버 콘셉트 이미지.



도요타 달 탐사선 루나 크루저 상상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지상은 물론 하늘길과 우주까지 사업 영역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다.

우주산업은 과거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등 글로벌 기업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과 직결되는 저궤도 위성에 집중하는 한편 달 탐사용 모빌리티 개발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주 탐사·개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20년 3873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에서 연 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에는 1조 1039억달러(약 138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세에는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에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술 이전

을 허용한 것이 마중물로 작용했고 인간의 위성 발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주산업이 글로벌 블루오션으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업체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합류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상과 해상, 항공을 넘어 우주로 나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일 국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달 탐사 전용 로버' 개발 모델 제작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달 탐사 로버 개발모델 제작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실제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주행 및 임무수행 연구를 추진, 2027년 실제 달 표면 탐사가 가능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합류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20일 국내 우주분야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달 탐사 전용 로버의 개발 모델 제작에 돌입했다. 개발 모델은 달 표면과 유사한 극한의 환경에서 실험을 거듭하며 2027년 최종 완성된다. 달의 남극부에 착륙해 광물 채취, 환경분석 등과 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M과 도요타는 현대차그룹의 경쟁자다. GM은 2021년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에 사용될 신형 달 표면 탐사용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다. 2025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요타는 2019년부터 일본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와 함께 2030년을 목표로 달 탐사 로버 '루나 크루저'를 연구하고 있다. 루나 크루저는 전체 길이 6090mm로 거대한 태양 전지판과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혼다와 포르쉐, 중국 지리자동차 등은 자율주행 성능과 직결되는 저궤도 위성에 집중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GPS는 2만 km 밖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지구에서 200~1000km 상공을 도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초정밀 위성 항법 시스템은 자율주행 외에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물류와 드론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인 지리자동차는 자회사인 지스페이스를 통해 지난해 6월 자율주행용 저궤도 인공위성 9기를 우주로 쏘아올렸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韓日 12년만에 서틀외교 가동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실무 방한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7~8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배우자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서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 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협력을 비롯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현안 및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입장 과 독도 영유권 주장, 강제동원(징용) 문제 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5월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윤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정이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적 순서"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방한이) 빨라진 부분은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성을 평가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한전, 영업손실 32조... 미룰 수만 없는 전기료 인상

2분기 전기료 이르면 내주 결정  
원가이하 요금에 재무악화 심화  
kWh당 10원 안팎 인상 가능성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전기계량기가 돌아 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키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거에는 얼마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는지 돌아보자.

2일 업계에 따르면 kWh당 10원 안팎 오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 가계의

부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2021년 5조 8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사상 최대인 32조 65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의 부채 비율은 2021년 223%에서 지난해 459%로 두 배가량 뛴 상태다. 높은 부채 비율과 적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측은 ▲원전 정비에 따른 민간 전력 구입비 상승 ▲송배전 설비비 상승 ▲석탄·LNG 가격이 상승에도 전기요금 동결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연료비'와 '투자보수'의 원가 영향이 크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선로를 통해 사용장소까지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료비, 송변전 설비, 투자비용, 판매관리비 등이 원가로 산정된다.

과거에도 전기요금 결정 시 이러한

원가를 기반으로 조정해왔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잦은 인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됐다.

'오일쇼크'는 1973~1974년 제4차 중동 전쟁 시기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8~1980년의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공급의 부족으로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한 사건이다.

1974년 30%, 42.4% 두 차례, 1979년 34.6%, 1980년 35.9%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오르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가가 안정된 1980년 후반에는 전기요금 인하 추세를 보였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한번 생각해볼 것" /사진 뉴시스  
▲국회 첫 부의장 직속 정책자문기구 '빈곤아동자문위' 출범

▲윤재옥·박광온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 '협치' 공감  
▲'한미의회 외교' 국회 방미단, 6월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할 듯



▲국방부, 한반도 내 日 해상자위대 군사 협력... "그런 일 없다"  
▲외교부, '대만 여행' 한국인 사망... "필요한 영상 조력 제공" /사진 뉴시스

#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희망”... 3國, 역내 RCEP 이행 지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4년만에 'ADB 연차총회' 개막

7년만에 韓日 재무장관 회담 열어  
“인적교류 회복, 대화채널 복원하고  
공동이익 창출분야 공조 강화를”

“韓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 전망  
수출·투자 등으로 경제회복 기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각국 재무장관 수상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인천 송도에서 나흘간 열린다. ADB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1970년, 2004년에 이어 세번째다.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는 이른 오전부터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대표단과 국제기구,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가 몰렸다. ADB는 이번 행사에 약 5700명가량이 참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 7년만에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

특히 이번 총회에는 약 7년 만에 부활하는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 이목이 쏠렸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왔고,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간에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전격 결정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정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26회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회담 이후 수출 규제 정상화 등 양국 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를 풀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추 부총리는 “항공편 추가 증편과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확대를 보다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등에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추 부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와 지역 및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 만에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한중일 재무장관 “3국 경제관계 둔화돼”

이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교류, 정책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제안했다.

앞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

O)는 올해 3국이 경제재개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이후 경제 관계가 둔화된 만큼 관광, 인력, 문화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회복에 기여하자는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공동메시지를 통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지지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

트남)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팬데믹을 딛고 빠르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교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시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정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기출자를 통해 자금 조성)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정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3국은 의장국으로 아시아 10개국과의 미래과제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작업반1은 싱가포르의 의장국으로 금융인프라금융을, 작업반2는 중국이 구조적 이슈대응을, 작업반3은 일본이 금융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작업반4)도 핀테크 기술발전을 위해 역내 공동규범을 연구하고, 오픈 뱅킹 기술을 지원한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소비자물가 3.7% ↑... 14개월만에 3%대로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110.80  
신선식품 3.1%, 근원물가 4.6%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고물가 둔화세를 반영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 4.2%보다 0.5%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2월 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에 이어 7월 6.3%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올초까지 5%대에 머물렀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수)는 4.6% 올라 전월 4.8%보다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대폭 내려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려 2월 이후 석달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세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세도 물가추세 둔화에 반영됐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0%로 농산물이 1.1%올랐고 축산물은 1.1% 내려 전월의 -1.5%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산물은 6.1% 올랐다. 가공식품은 7.9% 올라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 9.1%보다는 오름세를 축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주된 원인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농수산물 수급도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영수 기자 hys@

## 혼다, 5년간 57조 투자 ‘비전2030’ 발표

### 》1면 ‘완성차, 미래 모빌리티’서 계속

지리자동차는 올해 초 오는 2025년까지 위성 73기를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갤럭시 스마트 드라이빙’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조정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혼다는 지난 2021년 우주 사업 진출 계획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했다. 5년간 약 6조엔(약57조원)을 투자해 2030년 1톤 이하 저궤도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외에도 혼다는 우주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할 로봇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는 위성개발 스타트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 산업은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각국의 민간 기업들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자율주행과 원격제어 기술 등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간 우주 개발 노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메모리 수출 확대... 첨단반도체 지원 절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  
반도체 팹리스기업 수출·투자 회의  
리벨리온 등 팹리스 6개사 대표 참석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설계·제조·후공정 산업 생태계 강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업계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정책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수출·투자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개발업체인 사피온코리아·퓨리오사 AI·리벨리온, 비전용 AI반도체 개발사 비전넥스트, 자동차용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데이터서버용 가속기반도체 업체인 파두, 이미지센서와 센서용 AI반도체 제조업체인 픽셀플러스 등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6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상반기 중 반도체 수요 기업들의 재고조정 기조가 유지돼 수출과 경영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서버 등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 조정으로 초과공급 추세가 완화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차세대 시장 성장에 따라, 데이터서버 및 엣지 디바이스용 AI(인공지능)반도체와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1차관은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나, 최근 반도체 수출과 기업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셋GPT 등 인공지능 확산으로 수출과 투자 유망 품목으로 꼽히는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품목에 3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세종=한영수 기자 hys@

# “범위 확대로 GDP 견인” vs “편법승계 악용 될 수 있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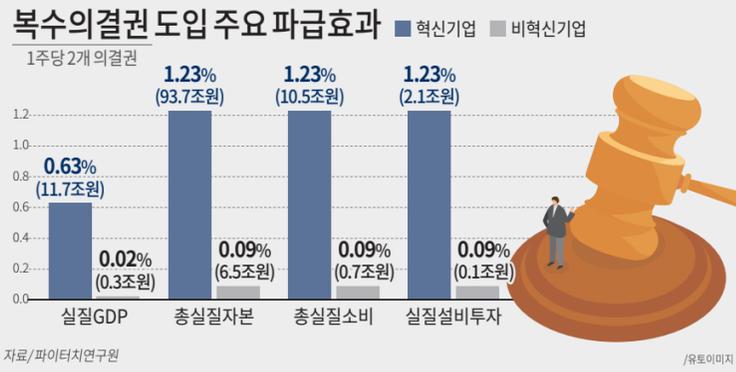
### 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문턱을 최종 넘어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이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다른 숙제를 안겨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를 혁신기업에까지 확대해 적용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실질GDP)은 11조7000억원, 총실질소비는 10조5000억원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복수의결권을 놓고 일부에선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또다른 쪽에선 이참에 아예 비상장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에까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법이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면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엔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기업 복수의결권 적용시 3년간 GDP 11.7조 상승 효과**

**‘1주 1의결권’ 원칙 벗어나 주주 손실방지 장치 부족**

파이터치연구원이 2일 내놓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메인비즈)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은 0.63% (11조 7000억원), 총실질소비는 1.23% (10조 5000억원)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조1000억원 가량의 실질

설비투자도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을 혁신적이지 못한 기업에 적용하면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이런 혁신기업이 늘어날 수록 총노동수요,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른다. 자본 공급량도 증가한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또 늘어난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는 실질GDP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한 자본 공급량은 실질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면서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지는데,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실질GDP (0.02%·3000억원), 총실질자본 (0.09%·6조5000억원), 총실질소비 (0.09%·7000억원), 실질설비투자 (0.09%·1000억원)가 혁신기업에 도입한 효과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복수의결권 도입시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확률도 혁신기업은 6.44%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은 0.69%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정주 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또 창업주이면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등기이사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동의

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최대 10년까지만 존속할 수 있고, 상장시엔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시행을 앞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1주 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편법 승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다른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위로 발행했을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근로자-사용자 입장차 확인... 파행책임 ‘시끌’ 여행 수요 증가에도 경기 지표 ‘사상 최악’

##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근로자측 박준식 위원장 사퇴 요구 사용자측 “동결도 어려운 상황”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지난 회의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위원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측은 인상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측 모두발언에 나선 박희은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은) 1차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을 지목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동계약 마련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회는 노사공이 동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와 위촉, 해촉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위원 전원 출석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려 하자, 근로자측 박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회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 날은 자격이 없는 임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반박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

비 5.0% 인상)으로, 심의에서 3.95% 이상 인상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이명호 위원(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기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근로자 입장분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기 사업주 입장 반영하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차이나 뉴스&리포트

노동절 연휴기간 철도승객 사상 최대 4월 제조업 PMI 49.2... 수축 국면

중국의 경기 반등 여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철도승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한 보복여행 수요에 관광지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는 오히려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가장 안좋은 상황인 것으로 나오면서다.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4월 29일~5월 3일) 첫 사흘 동안 약 1억6000만명이 항공과 철도 등을 이용해 여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중국국가철도그룹은 지난달 29일 철도 승객은 196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행된 열차 수도 1만2064대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음날인 30일에도 1783만명이 1만1353대의 열차를 이용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의 수도공항과 다싱공항은 29일 2120편의 항공편을 운항했다. 역시 사상 최고치다. 수용한 승객은 총 34만6900명이다.

상하이 푸둥 공항으로는 연휴 전날인 지난 28일 약 4만6000명의 승객이 도착했다. 3년 만에 최대치로 연휴 기간 동안 총 146만명이 상하이의 공항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행이나 소비 등 일부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다. /AP·뉴스1

커졌다.

전국적으로 주요 소매 및 식음료 기업의 수익은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의류 매출은 20%, 보석류는 17.4% 늘었고, 주요 요식업 매출은 전년 대비 36.9%나 증가했다. 여행 예약 플랫폼 등에 따르면 관광 명소의 티켓 주문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00% 이상 급증했다. 호텔 예약도 2019년 노동절 당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회복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하락해 4달 만에 다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시장 예측치 51.4에 크게 못미치면서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버리고 리오프닝에 나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제조업 PMI는 작년 12월 47까지 하락했지만 리오프닝 이후 올해 1월 50.1, 2월 52.6, 3월 51.9 등으로 꾸준히 확장 국면을 유지해왔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국가의 재개방이 지난 몇 년간의 압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지만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안삼미 기자 smahn1@

# “4차산업혁명 맞는 노동환경 필요... 고용세습 뿌리 뽑겠다”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추진  
특권·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 시급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현실 대안 마련  
노동개혁 시즌2 불법부당 관행 개선

## 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

일시 : 2023. 5. 2.(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를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노동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도록 2일 원내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공정채용법’ 등 관련 개혁 법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개혁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민간 전문가인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엔과 이 대표, 정은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 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 대안, 입법 지원책 마련으로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이 특위 목표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노동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노동개혁 의제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이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을 요구하

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불공정·불합리 개선, 공정·정의에 기반한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며 “사용자의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환경·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문제도 심각한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채용 청탁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당론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육아 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전기차 넘어 전기선박·UAM... ‘미래 모빌리티’ 주도 나서

##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개막  
전기차 관련 200여개 업체 참가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이 9일 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가 새로운 막을 올렸다. 10회째를 맞아 전기차 뿐 아니라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다.

IEVE가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열었다. 5일까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관련 전시와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IEVE는 개최 10주년을 맞아 전기차 뿐 아니라 전기선박과 UAM 등으로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전기버스 제조사인 우진산전과 BMW 공식 딜러사인 도이

치모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업체를 비롯해 배터리와 모터 및 충전까지 전기차 생태계 관련 기업, 그리고 전기선박과 UAM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 IEVE는 200여개 세션에

이르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깊은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부품산업 생태계 ▲기후위기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UAM ▲국제표준 등을 주제로 잡았다. 5회째를 맞은 실리밸리 투자유치 비즈니스포럼과 ‘UC버클리 경진대회’를 비롯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팁스(Tips)운영상 워크숍’과 ‘테크 아일랜드 밋업’ 프로그램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IEVE는 그동안 국내 전기차 기업들을 소개하며 전기차 보급을 주도해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전기차 허브로 자리잡은 상황, 올해에도 차세대 전기차를 앞세워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우진산전이 개발한 전기버스 ‘아폴로 1100’이 소개된다. 301.7kWh 고효율 배터리를 탑재해 412km를 달릴 수 있는 모델로, 국내 지자체에서

도 도심형 대중교통 버스로 검토중으로 알려져있다.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제조업체 리텍도 첫 전기버스 ‘e-CENTOR-K’를 IEVE에 처음 론칭한다. 튀르키예 최대 버스제조업체인 오토카르에서 수입한 7m급 전기저상버스다.

IEVE가 10주년을 맞아 영역을 전체 모빌리티로 확대하면서 로봇과 전기선박 등 다양한 분야도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돌봄로봇과 노면로봇청소기를 내놨다. 이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로봇산업의 현주소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선박관도 따로 마련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빈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친환경선박 모형을 전시하고 바다에서도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열렸음을 짐작케 했다.

한국전기선박협회와 함께 마련하는 ‘제1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도

있다. 5월 3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주요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내의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현주소와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수소연료전지 보트 개발 사례 등을 공유한다.

하늘을 날으는 모빌리티, UAM과 관련한 대규모 컨퍼런스도 이어진다. 한국UAM협회가 창립하며 처음 주관하는 ‘한국UAM협회 창립 포럼’이 대표적. 주제는 ‘K-모빌리티의 미래: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는?’으로 UAM개발 동향과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K-UAM의 현재와 미래’를 국방과 테러, 부품 등의 분야로 나눠 진단한다.

부품 산업 생태계와 관련한 자리도 마련됐다. 한국전동화부품산업생태계구축협회는 국제전기차엑스포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평적 e-모빌리티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는 첫 포럼을 5월 2일 개최한다.

/제주=김재용 기자 juk@

# 전기료 판매단가, 구입단가 보다 30원 이상 낮아

>> 1면 ‘한전, 영업손실 32조...’서 계속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총 9회에 걸쳐 28.6%를 인하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 인하율은 53%에 달한 셈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해 1990년대에는 적정 예비율을 밑도는 수급 불안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장기적 전력수급 안정에

필요한 전원개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22.7% 인상하고, 1998년 1월과 1999년 11월에 각각 6.5% 및 5.3%를 추가 인상했다. 1997년 말에 터진 외환 위기에 따른 연료비, 이자비용 증가 등 인상요인의 발생과 투자보수를 하락 영향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2000년도에 들어선 11월에는, 유가

급등에 의한 연료비 증가분 보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4%를 인상했다. 2008년 발생한 유가 및 석탄가격 급등으로 전력공급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에너지 가격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연료비연동제 요금의 청구가 유보됐고, 201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공급 약관까지 개정했지만, 시행 직

전에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폐지됐다.

이후에는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원가연계형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해당 체계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기존 요금에서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부과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는 원가 이하의 전기 요금이 지속되고 있어 한전의 재무악화는 심화하고 있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

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으며, 작년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를 돌파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novation**



작품명 **Green Innovation**

모두가 꿈꾸는 넷제로 세상,  
SK이노베이션이 만들어 갑니다

SK이노베이션의 **그린픽처**

송영길 민주당 前 대표 검찰 자진출석

# “모든 책임 지겠다… 주변인 협박·별건수사 중단해야”

검찰측 조사거부… 기자회견 가져  
“수사 시작 전 피의사실 유출 유감  
특수부 아닌 공안1부에 배당해야”

2021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으나, 검찰의 조사 거부 방침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도착해 출입절차를 밟았으나, 검찰 측은 미리 밝힌 대로 송 전 대표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억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수사는 안 된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출입 거부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20대에 막 결혼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위경맘,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억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전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 전 대표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다가온다”면서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신의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 것이 아니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가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이중 별건 수사라고 했다. 이 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 아닌가”라며 “(이 전 사무총장)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 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사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당대회라는 것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후보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피의자가 수사 일정·방식 요구… 특권 의식의 발로”

“협조 모양새 취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수사 방해·여론 호도”

국민의힘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2일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비꼬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공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겉으로는 검찰 수사 협조 모양새를 취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는 알박한 출두 소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송 전 대표 자택, 후원 조직, 경선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으로 돈 흐름 추적에 나

선 점을 언급한 뒤 “최근 송 전 대표 (2021 전당대회)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 쇼나 핑수 출두 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 검찰 자진 출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입증을 검찰에 통보해 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범위의 균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尹 대통령 “한미동맹 확장 이제 시작…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미정상회담 성과·결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민방문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 방미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이 그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역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방미 일정 중 하나였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언급하며 “단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바이오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박광온, 대통령 회동 거부 “당 대표가 순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 회동 가능성은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전날(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제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2일) 오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방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와 이 정무수석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

자들과 만나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둘이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셨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하나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ADB

56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2-5 MAY 2023 | INCHEON, REPUBLIC OF KOREA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와 발전을 위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2023.05.02 ~ 05.05 개최됩니다.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카드업계, 1분기 실적 악화 속 양극화도 뚜렷

주요 카드사 순익 전년비 감소  
신한 5% 줄고 하나 63% 급감  
조달비·연체율 상승 등 걸림돌  
규모 작을수록 채권발행 부담



주요 카드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조달비용, 연체율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사별 규모에 따라 수익성 양극화도 뚜렷한 모습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롯데카드를 제외한 주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5% 하락에 그친 반면, 하나카드의 순이익은 63%나 급감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1분기 당기순이익 6414억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1위'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올해 '애플페이 돌풍'

을 일으킨 현대카드를 비롯해 롯데카드의 1분기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1분기에 순익 14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이어 KB국민카드는 순익 8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우리카드 460억원(전년 동기 대비 -46%), 하나카드 202억원(-63%)을 기록했다.

카드업계에서는 1분기 업황 악화의 요인으로 조달비용 및 연체율 상승을 꼽고 있다. 여전채 가중금리(스프레

드가 축소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시장금리는 상승했으며 경기침체 여파로 연체율이 올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았다는 것이다.

통상 카드업계는 조달한 자금을 2~3개월 뒤에 사용한다. 올 1분기 카드업계가 운용 및 용동에 사용한 자금은 지난해 11~12월에 조달한 자금이다. 지난해 4분기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6.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 여전채스프레드는 1.92%포인트(p)를 기록했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대손비용이 늘어난 것 또한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카드사 5곳의 1분기 연체율은 ▲신한카드(1.37%) ▲우리카드(1.35%) ▲KB국민카드(1.19%) ▲하나카드(1.14%) ▲삼성카드(1.10%) 순이다.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신한카드다. 3개월 사이 연체율이 0.33%p 올랐다. 대손충당금은 1910억원을 쌓으면 전년 동기 대비 31.3%를 추가 확보했다. 이어 연체율

이 가장 적은 폭으로 오른 곳은 하나카드다. 지난해 말 0.98%에서 1분기 1.14%로 0.16%p 올랐다.

문제는 카드사의 규모에 따라 순익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달비용의 경우 카드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현재 신한·삼성·KB국민카드는 'AA+' 등급의 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우리·하나카드는 'AA'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이달 AA+등급의 여전채는 연 3.96%까지 하락했지만 AA등급의 경우 연 4.09%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2분기는 '가정의 달' 특수 등 카드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다. 관련 행사를 마련해 수익성 제고를 노리고 있다.

여전채 한 관계자는 "같은 등급의 여전채를 조달하더라도 액면가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관리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80개 다양한 특약 최대 100세까지 보장

한화생명 80개의 특약을 담아 개인별 맞춤 설계 가능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 ◆ '낙상', '삼킴' 등의 어린이 응급실 관련 특약 개발

한화생명이 핵심 3대 보장인 암·노·심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매년 5%씩 증액하는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80개의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이 원하는 특약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체증형 선택 시, 완납 후 최대 100세까지 매년 5%씩 진단자금이 증가해 물가 상승까지 대비할 수 있다. 일반보험과 달리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했다. '90일 면책기간'이나 '1년 미만 금액' 등의 조건 없이 즉시 보장을 개시한다.

어린이 환자의 응급실 내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삼킴' 등의 응급실 관련 다빈도 생활질환을 보장하는 특약도 새롭게 탑재했다.

## 오토바이 탑승사고 벌금·치료비 등 보장

삼성화재가 오토바이 탑승자를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 ◆ 벌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삼성화재는 인터넷으로만 가입 가능한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지원금도 보장한다. 특약 가입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수술비, 골절, 인대 및 힘줄 파열, 안면열상 진단비 등도 담보 가능하다.

### KB손해보험이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구조를 확대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 2억1000만원까지 세 번

KB손해보험은 'KB 3.3.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와 'KB 3.5.5 오!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를 이달 초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3.3.5(3.5.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는 암 발병 시 최초 1회만 보장하던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각각 7000만원씩 보장한다. 보장 질병은 ▲위암, 폐암, 간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 암 등이다.

# 이복현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 상생금융 마중물 되길”

(금감위원장)

금감원·신한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이스피싱 피해지원·예방 맞손  
신한銀, 3년간 300억 규모 출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보이스피싱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진



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심리상담·법률자문, 금융소비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

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피해 예방교육과 대(對)국민 홍보활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돼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총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180억원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어 심리·법률상담에 30억원을 지원한다. 금전 손실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진행한다. 또 예방교육·보험제공에 15억원이 쓰인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 등에 75억원을 투자한다. 쇼핑몰, 대중교통 광고스크린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영화 등 홍보매체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BNK금융, 임직원 생활 속 ESG 실천 유도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 추진  
일회용품·잔반 제로데이 진행

BNK금융그룹이 그룹 경영철학인 '바른 금융'의 실천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함께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BNK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 ESG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

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월 첫번째 금요일과 세번째 금요일을 ESG 실천하는 날로 정하고 각각 사내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는 일회용품 제로데이와 사내 식당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잔반 제로데이를 진행한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임직원에게는 커피 등 각종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확산을 위해 월별 캠페인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에 참여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포즈를 취했다. /BNK금융

횟수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생활 속 ESG 실천을 위한 바른 행동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BNK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SK E&S, 美 업체와 국내 수소생산기지 건립에 1조 투자

플러그파워와 ‘기가팩토리’ 건설  
합작법인 SK 플러그하이버스 통해  
SKE&S 5100억, 플러그 4900억 부담  
연구개발센터·충전소 구축에 투자

SK E&S가 미국의 대표 수소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함께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등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SK E&S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행사에서 플러그와 이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플러그를 포함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6개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SK E&S와 플러그는 지난해 설립한 합작법인 ‘SK 플러그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통해 총 1조원을 국내

수소산업에 투자한다. 합작법인 자본을 따라 SK E&S가 5100억원, 플러그가 49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에 기반한 한국 수소 시장의 잠재력과 SK E&S의 차별적 경쟁력이 양사 간 협업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작투자는 수소분야에서 이뤄지는 한-미 기업 간 대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플러그가 보유한 수소분야 첨단 기술력과 SK E&S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에너지 생산, 유통, 판매 역량이 만나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 E&S 측은 “국내 수소산업을 향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산업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수소설비 핵심 기지 ‘기가팩토리’ 구축

양사의 이번 투자금은 국내에 건설되는 ‘수소기술 R&D센터 및 기가팩토리’ 구축에 투입된다. 기가팩토리는 차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SK E&S

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SK E&S는 “이 곳에서 생산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에는 플러그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수소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수

소연료전지는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2026년부터 생산될 블루수소를 연료로 하는 청정수소 발전 사업에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인 수전해설비를 생산·공급해 국내 그린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액화충전소 구축·운영… ‘수소경제’ 가시화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운영 분야에도 투자한다. 전국 주요 지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원활한 액화수소 공급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비교해 대량 운송과 빠른 충전이 가능해 수소 유통·저장 방식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액화수소 연 3만톤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연 5만톤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SK E&S가 생산한 액화수소는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구축·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로 공급돼 ‘수소경제’ 현실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조지 맥나미 플러그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수소산업 선도 국가로, 수소를 국정과제로 육성 중인 한국 정부의 선구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아시아 수소 시장의 수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플러그와의 이번 공동 투자는 한국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적용한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고, 한국이 전세계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더 기아 EV9 기본모델.

##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계약 돌입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차

기아가 ‘더 기아 EV9(이하 EV9)’의 사전 계약을 3일부터 시작한다.

EV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델로, 기아 라인업 상 새로운 플래그십이자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가장 혁신적인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다.

EV9는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선사할 실내 공간을 갖췄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된 전면부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과 ‘스몰 큐브 프로젝트 LED 헤드램프’, ‘스타맵 LED DRL(주간주행등)’ 등 깔끔한 차체 면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조명으로 미래 지향적 느낌을 구현했다. 이와 더불어 차체 전반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볼륨감과 끈기 짙은 선으로 구현한 다각형의 대비를 통해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정통 SUV로서의 웅장한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냈다.

실내는 편평한 바닥과 긴 휠베이스 등 E-GMP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설계한 넓은 공간에 간결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더해 탁 트인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또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운전경험을 선사할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하드 타입 터치버튼’, ‘스티어링 휠 엠블럼 라이트’와 다양한 상황에서 공간 활용성을 높여줄 ‘릴렉스’ ‘스윙블’ 등 2열 시트 사양도 갖췄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제네시스, ‘인천 에어포트 서비스’ 출시

제네시스가 2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차량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인천 에어포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에어포트 서비스’란 제네시스 고객이 공항을 이용할 경우 차량을 전용 실내주차장에 보관해주고 차량점검 등 정

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3월 선보인 김포 에어포트 서비스의 높은 고객 만족도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인천공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제네시스 홈투홈 서비스 쿠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 삼성중, ‘FLNG’ 빠르고 저렴하게 짓는다

(바다위LNG 공장)

美 ‘OTC 2023’서 DNV선급 인증  
차세대 생산설비 개발 성공

삼성중공업이 ‘바다 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의 차세대 모델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재입증했다. 사용을 표준화해 고객 요구에 따라 용량을 쉽게 변경하도록 했으며 납기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핵심이다.

삼성중공업은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해양기술 박람회(OTC 2023)에서 노르웨이 DNV선급으로부터 FLNG 부유체 독자 모델(MLF-N)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MLF-N은 최근 주요 LNG 생산국의 LNG 수출 증가 영향으로 육상 플랜트에 비해 납기가 빠르고 경제적인 FLNG 모델을 찾는 시장 상황에 맞춰 개발한 삼성중공업의 전략 제품이다.

삼성중공업의 MLF-N은 선형과 사양을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LNG 화물창 형상과 이를 둘러싼 선체를 규격화



삼성중공업의 차세대 FLNG 독자모델인 MLF-N의 모습.

해 화물창 용량을 기본 18만m³에서 최대 24만5000m³까지 발주처가 필요한 만큼 손쉽게 늘릴 수 있다. 동시에 천연가스 액화 모듈 같은 약 5만톤 중량의 상부 플랜트 설비를 밑에서 떠받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됐다. 선체에 탑재되는 주요 장비의 최적 사양을 표준화해 엔지니어링 기간도 대폭 줄였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한 FLNG에 MLF-N의 일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다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해 MLF-N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MLF-N은 LNG 개발을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하길 원하는 발주사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고객지향적 기술 혁신을 통해 FLNG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이를 정제하고 LNG로 액화해 저장 및 하역까지 할 수 있는 복합 해양플랜트다. 최근 LNG 수요가 늘면서 해상기지 역할을 하는 FLNG 주문도 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전 세계 FLNG 발주 5척 중 4척을 수주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위기 가정’ 아동 20명 집중 후원

나눔 키오스크 활용 기부 활성화

삼성전자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한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나눔의 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기 가정 아동 20명을 집중 후원할 계획이다. 나눔의 달 캠페인은 삼성 임직원의 ‘일상의 기부’ 플랫폼이다. 나눔 키오스크를 활용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개인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즐겁게 기부할 수 있도록 ‘나눔 굿즈’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5월 중으로 나눔 키오스크를 찾지 않고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사내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나눔 키오스크’를 특별 개설했다. 이번달 후원 아동은 희귀난치병, 중증장애를 앓고 있거나 미혼모·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중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선정했다.

첫날 사연을 소개하게된 김빛나(가명) 어린이는 염색제 돌연변이로 인해 손, 발 등의 신체 결함과 내장 기관 이상이 유발되는 희귀난치병 ‘팔리스터-홀증후군’을 앓고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코에 줄을 연결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juk@

# 5G 성장궤도 안착...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3조 무난할 듯

(1분기)

5G 가입자 늘고 마케팅 비용 감소  
B2B·IPTV 등 신사업 성장 원인

SKT 전년 비 6.8% ↑... 비통신 성과  
LGU+ 8.6% ↑... 개인 정보 유출에  
유심칩 교환 비용 발생 이슈 전망  
KT CEO 부재 어닝쇼크... 11.2%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3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가 높은 5G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5G 상용화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3029억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3사의 1분기 합산 매출액은 14조 39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SKT는 10일, LGU+ 및 KT는 11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 3사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B2B 사업, IPTV, AI(인공지능) 등 신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거둔 점도 한 몫을 했다.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2조 2772억원에 비해 3%가 증가한 4조 403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T의 영업이익은 전년 4324억원에 비해 6.8%가 늘어난 4619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SKT의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0.4포인트가 증가한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동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 5135억원으로 전년 3조 4100억원보다 3%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36억원으로 전년 2612억원보다 8.6%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가 증가한 8.0%로 예상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유심칩 교체에 나서면서 유심칩 교환 비용 발생하는 점이 일회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KT는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나오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6266억원보다 11.2%가 줄어든 55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출은 전년 6조 2777억원 대비 3.1%가 늘어난 6조 4734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CEO 선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지 1달이 지났는데, CEO 선정 난항으로 인한 CEO의 부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익 746억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역기저 효과' 때문으로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제외하면 1분기 실적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T는 현재 대표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신사업 추진과 타 기업 투자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신사업 추진, 기업 투자는 중단됐다. 다만 투자가 들어가지 않아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사업 추진과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 3사는 지난해 9월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ARPU 하락 등 단기적 수익 감소가 예상됐지만, 5G 가입자 중 요금을 내리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서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 비통신 신사업에서 속속 성과를 거두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T의 경우 현재 비통신 사업 매출이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사들은 AI, 플랫폼,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사의 비통신 사업 매출은 2027년까지 67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TV를 인수 합병한 이후 IPTV를 중심으로 가입자 수신료가 증가했고, AI 고객센터인 AICC 사업 등 B2B 사업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며, IDC·클라우드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거두고 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통신 사업만 가지고 이동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 3사 모두 비통신 분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통신 사업 성과가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동 3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UAM(도심항공교통) 시장으로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 중"이라고 분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통신 3사, BMW와 eSIM요금제 선택

통신 3사가 BMW와 함께 차량 전용 eSIM 요금제를 출시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eSIM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칩을 활용하여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BMW 차량 뒷좌석 모니터를 통해 유튜브 등을 보기 위해 통신사 무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차량용 eSIM 서비스가 필요하다. 통신 3사의 첫 차량용 eSIM 요금제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모회선 데이터 공유 한도 내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

통신 3사가 BMW와 함께 차량 전용 eSIM 요금제를 출시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eSIM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칩을 활용하여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BMW 차량 뒷좌석 모니터를 통해 유튜브 등을 보기 위해 통신사 무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차량용 eSIM 서비스가 필요하다. 통신 3사의 첫 차량용 eSIM 요금제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모회선 데이터 공유 한도 내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

## KT, 차세대 AI 서비스 로봇 2종 출시

총 5종 AI서비스로봇 라인업 확보

KT가 차세대 AI(인공지능) 서비스로봇 2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각각 베어로보틱스와 LG전자에서 제작한 모델이다. 주행 안정성과 마케팅 활용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로써 KT는 총 5종의 AI서비스로봇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LG전자의 AI서비스로봇 차세대 모

델은 6개의 독립 서스펜션, 라이더/3D 카메라를 통해 주행 안정성을 개선했다. 또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콘텐츠를 10.1인치 디스플레이에 재생할 수 있어 매장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KT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2종 모두 태블릿과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돕는 '스마트오더' 서비스와 호출 시스템 등과 서비스 연동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 LS전선, 亞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 준공

연면적 3만4816㎡... 약 1900억 투입

LS전선이 아시아 최대규모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가동한다.

LS전선은 2일 강원도 동해시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해저 4동을 준공하고 기립식을 개최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명예현

원(주) 대표, 구본규 LS전선 대표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공장은 연면적 3만4816㎡로, 높이 172m 초고층 생산타워(수직연속압출 시스템, VCV타워)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7월 착공해 약 1900억원을 투입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알뜰폰도 '5G 중간요금제' 생긴다

'U+유모바일' 3종 요금제 신설  
데이터 125~50GB 구간 제공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U+유모바일(U+UMOBILE)'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U+유모바일은 데이터 125~50GB 구간에 3종 요금제를 신설하고 유심(USIM), 이심(eSIM), 단말 요금제로 각각 제공한다. 이번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이용 고객의 5G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객들이 사용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 앞선다.

출시된 5G 신규 요금제는 ▲125GB+5Mbps ▲80GB+1Mbps ▲50GB+1Mbps 유심(USIM), 이심(eSIM), 단말 요금제 각 3종씩, 총 9종이다. 유심과 이심 요금제는 5월 1일부터 판매를

<U+유모바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음성·문자	유심·eSIM 요금제 월 기본 요금	단말 요금제 월 기본 요금
125GB+최대 5Mbps	기본제공	54500원 → 43000원	65000원
80GB+최대 1Mbps	기본제공	52000원 → 41000원	61000원
50GB+최대 1Mbps	기본제공	50000원 → 39000원	58000원

/U+유모바일

시작했으며, 단말 요금제는 5월 내 출시 예정이다. 모든 요금제에 음성, 문자는 기본 제공된다.

유심(USIM), 이심(eSIM) 요금제의 가격은 ▲125GB+5Mbps(4만 3500원) ▲80GB+1Mbps(4만 1000원) ▲50GB+1Mbps(3만 9000원)이며, 단말 요금제의 경우, ▲▲125GB+5Mbps(6만 5000원) ▲80GB+1Mbps(6만 1000원) ▲50GB+1Mbps(5만 8000원)이다.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경우, 1~5Mbps 속도 데이터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5

Mbps는 유튜브 1080p 화질을 무난하게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이며, 1Mbps는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객은 월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추가 과금 걱정 없이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미디어로그 조용민 MVNO사업담당은 "이번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고객들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객 만족도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 컴투스 '크로니클', 해외 매출 500억 돌파

글로벌 출시 54일 만에 달성

컴투스의 소환형 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이 글로벌 출시 54일 만에 500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크로니클'은 세계 공략을 시작한 지난 3월 9일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매출 목표인 1,000억 원의 절반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대규모 클라베이션 업데이트 이후 스팀 글로벌 종합 매출 순위 6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52개 지역, 애플 앱스토어 11개 지역 RPG 매출 순위 TOP 10에



장기 흥행작 등극, 컴투스 '크로니클' 글로벌 매출 500억 원 돌파. /컴투스

등극했다.

지역별 매출 비중도 태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 아시아와 웨스턴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서머너즈 워)'를 잇는 또 다른 글로벌 흥행작의 면모를 확인시켰다.

특히 국산 MMORPG 불모지로 불려왔던 유럽에서 꾸준히 흥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스팀 매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RPG 매출 TOP 10을 벗어난 적이 없을 만큼 흥행 중이다. 유럽 주요 게임 시장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높은 매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RPG 매출 최고 2위를 달성하는 등 편중되지 않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주요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히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 태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ION SUPPLY DRINK

#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 감산 선언에 주가 바닥 설까지... 삼성전자株, 기지가 커나



감산규모 최대 25%까지 확대 관측  
삼성전자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외국인, 지난달 3조1364억 매수  
증권사 목표주가 최대 8만5000원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감산' 선언 이후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삼성전자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31% 오른 6만57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5800억원의 적자를 기록



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일 종가는 6만 4600원으로 전일 대비 0.78%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음날인 28일에도 1.39%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을 공식화하고 반도체 업체

들의 감산 경쟁에 가담하자,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3조1364억 원을 사들이는 등 강한 매수세를 보여 주가 상승에 탄력이 받고 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에 충분한 물량을 보유한 구형 제품을 중

심으로 감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수요에 따라 감산 폭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재고량이 충분한 DR4 등 레거시(구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감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기존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다.

위반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컨퍼런스콜에서 구체적인 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2분기부터 재고가 줄어든다고 언급했으며, 경쟁사 대비 출하량 가이던스가 낮음에도 재고가 감소한다는 점은 상반기 중 강도 높은 감산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감산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등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K

B증권은 기존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상향했고, 하이투자증권은 기존 8만 34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높였다. 유진투자증권도 기존 7만8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목표주가를 바꿨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이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회복 및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2분기를 저점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당분간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강보합세를 보인 뒤, DRAM의 업황 개선 시그널(또는 주가 반등 시그널)이 목격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말과 3분기 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키움증권, '명예훼손 혐의' 라덕연 고소

(H투자자문 대표)

SG발 주가폭락, 책임공방 소송전  
"라덕연, 자신의 책임 희석 위해  
김익래 회장 위법한 것 처럼 호도"

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고소장에서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주식 상승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필요가 생겨 시세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 라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

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나 넣고, (검찰·금융당국에) 진정서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SG사태 발생전인 지난달 20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다우 데이터 주식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매각 주관은 해외 투자은행(IB)에서 담당했으며, 김 회장 지분은 외국계 펀드·기금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딜 이후 2거래일 만인 지난 달 24일 다우데이터 주가는 이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관련자 10여명을 출국 금지 시키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원관희 기자



'VL르웨스트 투시도.

/롯데건설

## 하우스키퍼부터 스파까지 '실버타운' 진화

서울 광진구 '더 클래식 500' 호텔식 주거서비스... AV룸 등 갖춰  
부산 기장군 'VL라우어'  
맞춤형 건강식단, 24시간 컨시어지  
서울 마곡 'VL르웨스트'  
롯데호텔의 고품격 서비스 적용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인 뉴 시니어(New senior)를 타깃으로 실버타운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단지 내 조식 및 청소, 빨래 등을 해주는 호텔식 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 고급 실버타운으로 꼽히는 광진구의 '더 클래식 500'에는 하우스키퍼 서비스부터 발레파킹, 우편 택배 서비스 등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단지 내에는 스파나 골프연습장, AV룸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다수 들어섰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서 분양한 'VL라우어'는 고령층 입주자를 위해 호텔 세프가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 식단과 24시간 응대 가능한 컨시어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은 해당 브랜드를 론칭한 롯데호텔이 직접 담당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마곡지구마이스 복합단지 내 분양 중인 롯데건설의 'VL르웨스트'에는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 하우스키퍼 서비스 등 롯데호텔에서 누리던 다양한 고품격 서비스가 적용된다. 입주민 전용 창구를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며, 단지 내 '보바스기념병원'이 위탁운영 예정인 건강관리센터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에서 분양 예정인 '더시그니하우스 청라'의 경우 스마트 위치를 이용한 건강관리 및 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케어 등의 입주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뉴 시니어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실버타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 시니어는 현 노년층 세대와 달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강한 데다 넉넉한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 및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 뉴 시니어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주거서비스나 고급화 상품을 접목시킨 단지들이 실버타운 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서학개미, 일주일간 테슬라株 2700억 매수

해외주식 Click

2위 매수금액 884억, 3배 차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종목을 적극 순매수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16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반등을 기대한 서학개미들의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

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4월 24일~5월 1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약 2700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2위였던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의 순매수 금액 884억과도 약 3배 가량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달 19일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낙폭은 약 15%에 달한다. 서학개미들은 이 시기를 단기 바닥의 기회로 보고 매수에 돌입한 모습이다. IRA 수혜주에 따른 강세도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IRA 발표

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온전한 수혜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일일 성과 중 1.5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1.5배 주식(TSL)도 2333만달러(약 312억원) 어치 순매수하면서 3위에 안착했다.

서학개미들의 기회주의 매수는 반도체주에서도 돋보였다. 2위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는 ICE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해당 종목의 주가는 4주째 하락세를 타며 20.8%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서학개미들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반등을 노리고 순매수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마스크 벗자 짙어진 립 메이크업 ... 돌아온 '색조 열풍'

## 꾸안꾸 가고 꾸꾸

### (中) 뷰티

마스크 착용 해제에 피부 관심 ↑  
색조 매출 전년비 73% 증가  
미용기술 등 상담 고객 급증

4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온화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외모에 신경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눈 화장에만 신경쓰고 피부와 립 메이크업은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피부 관리에는 물론, 풀메이크업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꾸미는 '꾸꾸(꾸미고 또 꾸미는)' 트렌드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색조화장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2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4월 25일) 뷰티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신장하며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도 5% 증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뷰티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진행된 '제주항공 봄여행 메이크업쇼'에서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시연했다. /제주항공

상품군 매출 1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쳐 고객 수요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H&B스토어 CJ올리브영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3월 한달간 색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립 메이크업이 129%로 크게 늘며 색조화장품 신장을 견인했다.

뷰티컬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전

년 동기 대비 약 290% 급증하면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팬데믹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색조 화장품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대면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를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져 소홀했던 피부에도 신경쓰면서 미용기술과 피부과



올리브영 강남 타운 매장 앞이 쇼핑객들로 붐비는 모습. /올리브영

를 찾는 이도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면서 피부과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

삼성금융사 통합앱 모니모에 따르면 삼성카드 20~50대 회원의 지난해 2분기 피부과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 해제된 현재는 이용액이 더 커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성형외과 관계자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회복에 대한 문의, 그리고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시술 상담이 급증했다"며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윤곽 주사나 리프팅 등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뷰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뷰티 상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최근 뷰티 전문관을 '무신사다운 뷰티'로 리뉴얼하고, 색조를 중심으로 뷰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카카오택시도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도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Y2K 메이크업 관련 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4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장한 Y2K 패션 트렌드가 메이크업까지 이어진 데다 마스크 전면 해제로 글리터나 파츠 등을 활용한 화려한 눈화장과 글로시 립 등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HD한국조선, 사흘간 가스선 12척 수주

LNG 8척·LPG 4척 등 신규 수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힘쓸 것"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사흘 동안 가스선 12척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총 2조7900억원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만㎥급 LNG 운반선 2척, 17만4000㎥급 LNG운반선 4척, 8만8000㎥급 LPG운반선 2척 등 총 2조4230억원 규모 선박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20만㎥급 LNG운반선과 유럽 선사로부터 수주한 17만4000㎥급 LNG운반선 등 6척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17만4000㎥급 LNG운반선에는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Hi-ERSN(LNG재액화시스템)과 Hi-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2년 인도한 20만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ALS(차세대 공기순환시스템)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LNG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완전 재액화해준다.

아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8만 8000㎥급 LPG운반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하반기 선주사에 인도된다.

이 선박은 구 파나마 운하(Old Panama)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선형으로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도 실을 수 있도록 건조된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26일에도 아시아 선사로부터 총 3674억원 규모의 4만5000㎥급 LPG 운반선 4척을 수주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선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익성이 높은 가스운반선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글로벌 조선업 선도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홈쇼핑, ESG·테크 유망 스타트업 발굴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과 '맞손'

홈쇼핑이 서울경제진흥원과 손잡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홈쇼핑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과 함께 ESG 및 테크(Tech)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오는 6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홈쇼핑은 올해 처음으로 ES

G 스타트업 지원센터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지원센터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ESG 및 Tech 분야의 유망 기업을 발굴해 홈쇼핑과의 협업 및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의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귀뚜라미, 친환경보일러 대중화 앞장

종합점수 27.19점 기록 7년연속 1위

귀뚜라미가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 기관인 브랜드 키(Brand Keys)와 한국 소비자포럼이 함께 발표한 '2023년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소비자 조사 결과 가정용보일러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2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귀뚜라미보일러는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타인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브랜드 고객충성도 평가지수(BCLI, Brand Customer Loyalty Inde

x) 세부 조사항목에서 모두 업계 최고점을 획득하며 종합점수 27.1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귀뚜라미는 1960년대 현대식 가정용 보일러를 개발·보급한 이후 창업반세기 동안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친환경보일러 등 가정용보일러 산업의 변천사를 주도하며 소비자 신뢰를 구축했다.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성능, 고품질 친환경보일러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난방문화 혁신과 기후 위기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300억 상생펀드 본격 운영... 中소·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영홈쇼핑, 협력기업 저금리 대출

공영홈쇼핑이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2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업은행과 함께 '협력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기업은행에 200억원을 무이자로 예치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3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공영홈쇼핑이 추천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상생펀드 저금리 대출은 공영홈쇼핑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공영홈쇼핑 추천금액 이내로, 대출금리 연 2.6%p(포인트)를 자동 감면한다. 또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p를 추가 감면하면 최대 4%p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억원, 대출 기간은 최대 2년(1년+1년 연장)까지다.

이번 상생펀드는 사회적약자 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대해 수립했다. 대출금리

우대는 실질적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코로나19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상생의 정신과 가치를 키우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펀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 자리매김 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위니아 me 닥터마사지' 브랜드 협업

위니아에이드-휴테크 컬래버레이션

위니아 me 닥터마사지가 휴테크로도 공급된다.

위니아에이드는 휴테크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을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위니아me닥터마사지는 대우에이텍이 자동차 시트 기술력을 활용해 만든 척추 건강 의료기기다. 사용자 척추 길이와 굴곡도를 정교하게 스캔해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 분야 글로벌 통용 공인성적서 생긴다

국표원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KOLAS 인정한 시험기관서 제공 105개국서 중복시험 없이 가능 선정된 7개, 수출·첨단 분야 다수

정부가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이나 수출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해 기업들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공인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이 제공하고, 발급된 성적서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105개국에서 중복시험 없이 통용된다.

국표원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정책



/유도이미지

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유망시험 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 과제가 많다.

수출산업 분야로는 수출산업화기기 대되는 ‘산업용 로봇’,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냉장고 및 냉동기기류’ 등에 대한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 평가’, ‘의료기기 분야 사물인터넷 제품 성능평가’, ‘마이크로 LED 또는 투명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 성능 평가’ 등과 같이 기존 시험인증 서비스가 없던 첨단기술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2일부터 국표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 내달 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4월 농축산물 물가 1.8% ↓ 생산 회복에 가격안정 기대

농식품부 “5월 이후 계절 변화에  
공급 여건 개선… 안정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1.8% 하락하였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은 겨울 한파 및 일조 부족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 추세이나 전년비 낮은 수준이다.

닭고기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으나 5월 말부터 종계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작물별 수급동향을 보면 겨울 배추 생산량은 전·평년 대비 각각 12.8%, 4.4%로 늘어나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5-6월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도 전·평년비 각각 0.3%, 13.7% 증가해 수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의 경우 한파 피해로 겨울무 생산량이 전년비 22% 감소하여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 이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비축물량 5만 800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는 한편,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비축물량 일부를 직공급하고 있다. 또 단무지, 쌈무 등 가공업체의 원물 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수입무 전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양파의 경우 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어 도매가격은 4월 중순 kg당 1376원에서 4월 하순 828원으로 하락세이다. 감자는 4월 중순 이후 시설 봄감자가 본격 수확되어 도매가격은 전순 대비 16.1% 하락하였다. 소비자 가격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중순부터는 전체 감자 생산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노지 봄감자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의 경우 4월 한우 공급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도매가격(거세우)은 16.2%, 소비자 가격(1등급 등심)은 16.9%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어미돼지 수가 전년비 1.6% 감소했는데도 생산성이 증가하여 1-4월 도축마릿수는 역대 최대 물량이었다. 전년 동기 보다 0.3% 증가한 632만 마리로 전망된다. 4월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0%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닭고기는 병아리 공급감소 등의 영향으로 4월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14.8% 높은 4,079원/kg 수준이다. 5월 말부터 기온 상승으로 종계 생산성이 회복되어 병아리 공급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5월 이후에도 기온 상승, 봄철 생산물 출하,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7% 각각 상승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 괴산·부여 등 16곳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최종 확정

중기부·행안부, 13개 우수과제 선정 중양부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등 14개 기초자치단체, 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13개 우수과제가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육성·정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하고, 중앙부처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8개 지자체(협업 지자체 포함)가 23개 과제를 신청했다.

이들 과제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행

안부는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충북 괴산군은 ‘한지문화산업경제 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한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확장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에게 상품 개발과 생산·판매망 구축, 디자인 개선 및 고급화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팜 구조 고도화’를 과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면 중기부는 영농법인에게 농산물 가공 기술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하여 직접 재배한 작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한다.

전남 함평군은 ‘해보면 농공단지 전면 개편’을 과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면 농공단지’ 공간을 확장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지자체와 중기부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및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받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과제에는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원과 중기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원씩 총 800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정한 과제들이 당초 계획한 전략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을 오는 6월까지 제공할 것”이라며 “5월말에는 선정된 16개 지자체와 지역기업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기부, 中企 인력양성대학 17곳 선정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중심  
올 9월 교육과정 개설·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을 새로 선정했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AI(인공지능),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등 분야의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2개, 기술사관 육성사업 주관대학 5개 등 총 17개 대학이 미

래 유망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은 경남대, 경희대, 공주대, 광운대, 남부대, 단국대, 대전대, 동아대, 부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경국립대다. 기술사관 육성사업 주관대학은 경남정보대, 대구보건대, 두원공과대, 영남이공대, 울산과학기술대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17개 중 5개 대학이 선정돼 기존에 운영 중인 4개 대학 포함 총 9개(계약학과 5개·기술사관

4개)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을 통해선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각 주관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인프라 구축, 학생 모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9월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왼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들이 2일 오후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 심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전경영’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3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다.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위원회는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

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 중진공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업장 ▲시설물 ▲근로자 ▲중소기업의 4대 분야에 대한 10대 추진과제 및 20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안전경영 고도화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승호 기자

# 버스 속 소소한 재미

## 버스족(族)

BUSJO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 [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

1 서울시내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2 영상 속 A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A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3 이벤트 참여하면  
[ 다양한 브랜드 ] 선물이 속!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 전남도, AI 첨단농산업 조성 빨라진다... 쿠보사와 협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럽 순방 중 자동화·스마트팜 기술 등 협업 네덜란드 원예센터, 벤치마킹 모델



유럽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가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쿠보그룹(Kubo Group)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유럽을 순방 중인 가운데 선진 첨단농산업 전남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고 원예기업인 쿠보 그룹(Kubo Group)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쿠보 그룹의 피터 판 데르 크란 재무이사(CFO), 데니스 판 라이데 아시아·중동 총괄대표 등이 참석했다.

쿠보 그룹은 75년 역사를 가진 전

환경 첨단온실 건축분야의 세계 최고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매년 200ha 규모의 반 밀폐형 첨단 온실(ULTRA-CLIMA)을 4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농축산업 생

산업 향상을 위해 필요한 쿠보그룹의 첨단온실과 농업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또 쿠보는 전남도에 양질의 스마트팜 시스템 기술 자문과 노하우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전남도는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시 첨단온실 구축에 필요한 기술 정보 교환과 상호 방문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불리는 세계원예센터(WHC)를 시찰하고 관계자를 만나 농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순환농업,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 첨단스마트팜 단지인 남홀란드주에 위치한 세계원예센터는 2018년 3월 문을 연 후 스마트팜 농업

관련 비즈니스, 연구·실증·시연·교육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130개 기업, 40개 연구온실,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실리콘밸리에 비유되며, 원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행사나 정보공유의 중심지(허브)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혁신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계획하는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의 벤치마킹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김천시

###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억 돌파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두 달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해주고 2년간 3%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기준 대출 신청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규모인 200억원의 50%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김천(경북)=김상복 기자

진도군

### 4년 만의 '진도개 페스티벌'

전남 진도군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진도읍 동외리 진도개테마파크에서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만큼 진도견과 반려견이 함께 즐기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5일 개막 행사로는 사칙연산과 프리스타일 등 반려견 시범과 마술쇼, 버튼식 축포 등의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반려견 행사는 ▲어질리티와 달리기 등 진도견 도그 스포츠 ▲인명구조, 프리스타일 등 도그스포츠 대회다.

/진도(전남)=양수영 기자

사천시

###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사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출산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관내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출산지원금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6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80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공기관 취업 정보 제공 지역청년 채용기회 확대

대구경북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추진 16개 공공기관·대구은행 등 참여

대구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3년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 정보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게 돼 참가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채용상담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으로 이전

한 1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역인재들이 평소에 관심 높은 이들 기관의 채용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채용상담에서는 참가기관별 부스에서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채용설명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채용요강을 발표한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취업한 지역대학 선배의 성공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참가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채용되도록 공공기관과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2일 대전시청에서 사회 상처·갈등 치유, 국민통합 증진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전시

## 대전시,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나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추진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전지역협의회와 손잡고 대전시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나선다. 대덕특구 50주년 재창조사업 추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대전광역시는 2일 대전시청에서 사회 상처·갈등 치유, 국민통합 증진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협의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

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은다. 대전 지역 내 청년 취·창업 지원, 월세 지원, 청년주택 사업 등도 돕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대전시가 글로벌 과학 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대덕특구가 4차 산업시대에도 과학 수도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 '동네상권발전소'에 거제시 최종 선정

거제고현시장 리브랜딩 계획

거제시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실제 상권구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로컬커리에이터와 기초 지자체, 지역상인, 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 상권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상권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상권활성화사업의 예비사업으로써 2억원의 연구 기획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기획과제로선

정될 시 이번 사업과 연계되어 고현동상권 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대상이 돼 5년간 최대 1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거제고현시장을 예비상권으로 지정해 섬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거제고현시장을 '솔티드 마켓'으로 리브랜딩하고 관광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새로운 로컬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거제섬도' 김은주 대표가 로컬커리에이터로서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있어 고베를 마셨으나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지난 3월 재도전한 결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방향 제시

부산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함께 지역의 거시적인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부산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발표하는 '부산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부산산업의 디지털화·친환경화 견인'을 앞으로 5년간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지·산·학 연계 디지털 전문 실무인재 육성 ▲과학기술 기반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4대 전략으로 삼고, 이에 맞춰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국가 투자전략의 11대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부산의 상황에 맞게 ▲디지털(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지식서비스) ▲생명·의료 ▲소재·나노·기계·제조 ▲해양·물류·수산·식품 ▲에너지·환경·재난을 5대 기술 분야로 재편성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

# 상권끼리 손 잡았더니 행사가 축제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롯데백-서울시 '명동 페스티벌'**  
"상인들에 봄 부르는 축제 되길"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 슈퍼패스'**  
두타몰 등 7개사와 한달간 행사

**서울 성수동 동시다발 '팝업'**  
"여러개 브랜드 모여 시너지 효과"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열린 '명동 페스티벌 2023'에서 개막 세리머니로 페스티벌 캐릭터인 '미응이'와 라퍼커션의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롯데백화점은 오는 5월 7일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뉴시스

유통기업들이 상권 전체를 띄우는 대형 축제를 열고 있다. 1개 점포 단독 행사가 아닌 상권 전반과 규합해 즐길 거리를 더욱 넓혔다.

상권 전반과 연합해 여는 행사들은 지속가능한 상권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 축제의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1개 점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즐길거리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5월을 맞아 유통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상권 연합형 축제들이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서울시에 '명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제안해 7일까지 명동 페스티벌을 연다. 롯데백화점

이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전담했다.

김지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부장장은 "명동 상권은 K-문화바람을 타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관광 특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손잡고 명동 상권의 부흥을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가 명동 상인들에게 봄을 부르는 희망의 축제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명동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힘입어 공실률이 크게 줄고 있다. 쿠시먼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21.4%로 전년 동기 대비 4.0%p 줄었는데, 특히 명동이 직전 분기 대비 17.4%p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본격적으로 방한 외국

인이 늘어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배 증가하기도 했다.

명동은 아디다스, ABC마트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쇼핑 스트리트로 내국인들도 많이 찾는 거리로 변모 중이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은 동대문 상권에 함께 자리한 7개사와 '동대문 슈퍼패스'를 진행 중이다. 5월 한달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을 비롯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두타몰·CGV 동대문점·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등 7개 업체가 참여한다. 동대문 슈퍼 패스는 이번 DDP 봄 축제를 시작으로 참여사 및 혜택을 점차 확대해 가을, 겨울 시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쿠폰북을 판매해 상권 부흥을 노리는 한편, DDP 등에서는 매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열리며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크게 갖췄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관계자는 "동대문 상권의 여러 업체가 손잡고 쇼핑은 물론 전시와 식음, 숙박까지 다양

한 할인·프로모션을 집중해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동대문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활성화한 상권 중 하나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수많은 브랜드가 동시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전쟁 중이다. 2일 현재 팝업 스토어를 진행 중인 브랜드는 배상면주가의 '노린마울', 삼양사의 '상쾌한', 동서식품의 '카누'를 비롯해 그릭요거트 '요즘', 아이돌 걸그룹 '르세라핌', 젠틀몬스터, 마크 곤잘레스 등이 있다.

현재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인 한 브랜드 관계자는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의 격전지'로 여러 개 브랜드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이라면서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동시에 팝업스토어를 열다 보니 눈에 띄기 위한 기획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요즘은 점포나 매장 하나를 조명하기보다는 상권 전반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게 최근 추세"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경쟁사와도 힘을 합쳐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더현대 서울, 미술거장 '라울 뒤편' 특별전

프랑스파리 조르주 폼피두와 협업 개점 2주년... '전기의 요정' 등 전시

더현대 서울이 20세기 미술의 거장 중 한 명인 라울 뒤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7일부터 9월 6일까지 더현대 서울 알트원(ALT.1)에 지프랑스 파리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조르주 폼피두 국립 예술 문화 센터와 협업한 특별전 '프랑스국립현대미술관전: 라울 뒤편, 행복의 멜로디'를 진행한다.

'기쁨의 화가'로 불리는 라울 뒤편(1877~1953)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 거장으로 손꼽히며,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화려한 빛과 색으로 삶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더현대 서울은 9월까지 프랑스 거장 라울 뒤편의 작품 130여 점을 전시한다. /현대백화점그룹

이번 전시는 더현대 서울 개점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전으로, 라울 뒤편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브리앙 폼피두센터 수석큐레이터가 전시기획 총감독으로 참여했다.

라울 뒤편의 인생 역작이라고 알려진 '전기의 요정(1952~1953)' 오리지널 석판화 연작을 비롯해,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한 '붉은 바이올린(1948)', 라울 뒤편의 작품 중 처음으로 프랑스 국가 소장품으로 등록된 '도빌의 예시장(1930)'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모든 작품은 라울 뒤편이 생전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아틀리에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로, 작가 스스로도 큰 애착을 가졌던 작품들이다.

한편, 폼피두센터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라울 뒤편 작품을 비롯해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 샤갈 등 12만 여점의 근현대 미술작품을 소장 중이다.

/김서현 기자

## 쿠팡, 지역 중소기업 위한 '상생기획전'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맞손

쿠팡이 10월 31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기획전을 연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상생기획전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주관의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쿠팡 배너 광고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충북 기업의 약 700개 상품을 선보인다. 참여 기업은 화장품, 애완용품, 정수 필터, 생활 위생제품 등 제조업부터 작물 재배 업체, 광고물 제작 전문 업체 등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갖고 있음에도 판매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작년 기획전을 통해 높은 매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만큼, 올해도 성공적인 기획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

로도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상생 행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착한상점'을 통해 총 18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농축수산물들과 스타트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우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착한상점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0% 성장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이는 동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 성장률인 11.9%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치이며, 동기간 쿠팡 전체 매출 성장률인 26%보다도 높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에 편의점 결제 도입

10대·외국인 고객 편의성 개선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에 오픈라인 현금 결제 방식인 편의점 결제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결제는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거나 인증절차로 인해 결제가 어려운 고객이 현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결제 단계에서 '편의점 결제'를 선택해 주문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결제 바코드를 편의점에 가져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된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씨스페이스에서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 결제는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머트리'가 개발한 실시간 선불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갤럭시아머트리에 따르면 편의점 결제 전체 이용 고객의 99%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결제 도입으로 10대 고객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쇼핑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 올리비아로렌, 이지아 여름화보 공개

온라인 세정물 기획전도 진행

세정이 2일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의 2023 여름 화보를 공개했다. 전속모델 이지아와 함께 했다.

'피스풀파라다이스(PEACEFUL PARADISE)'를 콘셉트로 한 이번 화보는 모던하고 우아한 올리비아로렌의 스타일을 한여름과 잘 어울리는 다채로운 컬러감과 고급스러운 자수 디테일로 완성했다.

화보 속 이지아는 비비드한 옐로 셔츠 원피스를 착용해 산뜻한 서머룩을 완성했다. 앞쪽 자수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편안한 실루엣의 셔츠 원피스는 데일리룩으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여름의 청량함이 느껴지는 그린 색 블라우스에 화이트 데님 팬츠를 매치한 감도 높은 스타일링도 선보였다. 넥라인의 배색 스티치가 돋보이는 그린 컬러의 블라우스는 가벼운 소재감으로 여름철 시원하게 입기 좋다.

올리비아로렌은 화보 공개와 함께 온라인 세정물에서 기획전도 진행한다. 이지아가 착용한 제품을 비롯해 여름철 베스트셀러인 원피스부터 블라우스, 스커트, 정장셋업까지 다양한 여름 시즌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 CJ제일제당, '퀴진케이' 운영... 국가대표 한식 셰프 키운다

농식품부 프로젝트 협력 MOU  
유학 지원 등 5개 프로그램 진행  
"K-푸드 세계화 2.0 전략 펼칠 것"

CJ제일제당이 젊은 한식 셰프들을 발굴·육성하는 'Cuisine. K(퀴진케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CJ제일제당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퀴진케이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유망한 젊은 셰프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술·정보 인프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계적 한식 확산 분위기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민간 릴레이 격려 행보에 나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퀴진케이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 한식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CJ제일제당의 프로젝트를 응원했다.

퀴진케이 프로젝트는 ▲국제요리대회 출전 국가대표팀 후원 ▲한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해외 유명 요리학교 유학 지원 및 한식 교육 과정 개설 ▲한



2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uisine. K 발족식에서 CJ제일제당 주요 경영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자, 국가대표조리팀 대표 선수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식 명인,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식자재 연구 클래스 ▲한식 파인 다이닝 실습 등 5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품성장추진실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 등 가공식품을 앞세워 'K-푸드 세계화 1.0'을 일궈들면,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셰프들을 키워 세계인들의 삶에 K-푸드가 더 깊숙이 녹아들도록 'K-푸드 세계화 2.0'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CJ 회장의 "전 세계인이 1주일에 1~2회 이상 한식을 즐기도록 하겠다"는 한국 식문화 세계화 철학에 따라 한식 셰프의 위상을 높이고, 이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 식문화 확산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CJ제일제당은 먼저, 5월에 예정된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과 단체팀을 후원한다. 활동비, 유니폼, 식재료 등의 지원을 통해 국제 요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대표팀

은 대회 출전 시 태극마크와 퀴진케이 로고가 함께 부착된 셰프복을 입는다.

팝업 레스토랑 운영 기회도 제공한다.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젊은 셰프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의 혁신 허브인 'INNO Play(이노플레이)'에 한식 메뉴를 개발,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3개월간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의 젊은 셰프들이 유럽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항공비, 숙박비 등 제반 유학 비용도 제공한다. 또한, K-푸드

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셰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 교육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전 세계인이 한식을 배우는 '국제한식전문학교'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이곳을 거쳐 간 셰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식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자국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K-푸드가 세계 음식문화의 최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젊은 셰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퀴진케이 프로젝트가 '미중물' 역할이 되어 한식의 미래 인재들이 '화수분'처럼 자라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K-푸드 영토 확장에 앞장서 왔다.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운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CJ프레시웨이, 외식 가맹점포 1만곳 돌파

1분기 1만 869곳... 전년비 27% ↑  
마케팅 등 비즈니스 컨설팅 호응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전국 외식 가맹 점포 수가 올 1분기 기준 1만 곳을 넘어섰다. 점포수는 총 1만 86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한 수준이다. 프랭크버거, 금별맥주, 읍천리382 등 외식 브랜드 수는 436개이며 이 중에는 분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초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다.

이같은 성장세는 신규 고객사 유치와 기존 고객사 사업 확대에 의한 동반성장 효과로 분석된다. 1분기에만 범맥주, 삼산화관 등 유명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타베코리아를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18곳의 식자재 유통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해 현재 가맹점수가 세 자리를 넘어선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식 경기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CJ프레시웨이는 ▲브랜드 및 메뉴 컨설팅 ▲IP활용 상품 개발 ▲마케팅·디자인·경영 컨설팅 등 외식업체 맞춤형 솔루션을 적극 펼쳐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외식 솔루션'은 외식 브랜드 기획부터 매장 오픈, 메뉴 출시까지 돕는 외식 전문 컨설팅 서비스로, 올해 론칭이 결정된 브랜드만 4개다. '두가지떡볶이' 가맹본사인 두가지컴퍼니는 CJ프레시웨이와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브랜드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브랜드 네이밍, 레시피 개발 등에 참여한 두가지컴퍼니의 볶음밥 및 우동 전문점 '밥앤동'이 1년만에 100호점 돌파를 앞두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인 덕분이다. 두가지컴퍼니의 새로운 브랜드는 '국'을 주메뉴로 한 한식 브랜드로 연내 가

맹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객사 IP활용 상품 개발 및 판매도 본격화해 고객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카페 브랜드 '읍천리382'는 베이커리 제품인 '콩빵'을 마켓컬리에서 판매 중이다. '콩빵'은 읍천리382 매장에서 맛볼 수 있는 커피콩 모양의 디저트 메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읍천리382의 마켓컬리 입점을 위해 상품 제안부터 입점까지 책임졌다. 향후 판로 확대를 위해 고객사 IP 활용 상품들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학교 및 오피스 급식에서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마케팅 등 비즈니스 컨설팅도 고객사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식업체가 가맹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CJ프레시웨이 소속 전문 인력들이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브랜드 마케팅, 메뉴 패키지 디자인, 매장 운영 매뉴얼 등 분야도 다양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

## 셀트리온, 'CT-P53' 글로벌 3상 착수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은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인 'CT-P53'의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8일 CT-P53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해 유럽 의약품청이 관리하는 임상시험정보시스템(CTIS)에 IND를 제출했다. 이번 임상 3상에서는 총 512명의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53과 오크레부스 간의 유효성과 약동학 및 안전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CT-P53'의 오리지널 의약품 오크레부스는 로슈(Roche)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2022년

기준 약 9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했으며 ▲재발형 다발성경화증(RMS) ▲원발성 진행형 다발성경화증(PPMS)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셀트리온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등 핵심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악트라 바이오시밀러 CT-P47 등 연내 최대 5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프로세스를 준비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신약을 포함한 파이프라인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유통업계 신제품

롯데칠성음료

#### 칸타타 흑임자카페라떼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 참여형 음료 개발 프로젝트 '모두의 시그니처 시즌 1' 최우수작 '칸타타 흑임자카페라떼'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시그니처는 '내가 마시는 음료, 내 손으로 만들자'라는 콘셉트로 전국 곳곳에 숨겨진 소상공인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

흑임자카페라떼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카페 '인사이트커피'의 시그니처 음료로 흑임자의 고소한 맛과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가 어우러진 제품이다. 천안에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던 흑임자카페라떼를 전국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커피로 출시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농심

#### 하얀 짜파게티 큰사발

농심이 짜파게티 브랜드의 한정판 신제품 '하얀 짜파게티 큰사발(사진)'을 출시한다. 짜장소스는 검은색이라는 상식을 깨고 연한 색의 소스로 짜파게티 고유의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연감색의 춘장을 사용해 기존 짜파게티와 차별화된 비주얼을 구현했으며, 굴소스를 추가해 해물의 감칠맛을 한층 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일부 중국요리점에서 하얀 짜장면이 이색 메뉴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하얀 짜파게티 큰사발을 개발했다.

농심 '하얀 짜파게티 큰사발'은 오는 8일부터 전국 유통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종근당건강

####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종근당건강이 최근 패키지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로 '2023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우수 디자인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1954년부터 진행해 온 국제적 시상식이다.

종근당건강 패키지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종근당그룹의 심볼 '종(鍾)'을 모티브로 한다. 종근당그룹의 '기원(Origin)'과 건강에 대한 '기원(Prayer)'에 착안하여 종의 울림을 전파한다는 콘셉트로 '종의 메아리'를 표현해 낸 독창성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작에 선정됐다. /이세경 기자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환자 급여 적용

(혈우병 치료제)

중증 A형 환자 삶의 질 개선 기대

최초의 피하주사형 혈우병 치료제인 '헴리브라' 급여가 확대 시행된다.

JW중외제약은 '헴리브라피하주사'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건강보험 급여가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헴리브라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를 게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치료제(혈액응고인자 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헴리브라

/JW중외제약

에게만 적용되던 헴리브라 건강보험 급여가 이달 5월부터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헴리브라 급여 확대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우아하고 세련된 직사각형 케이스에  
담긴 새로운 작품 레이몬드 웨일  
토카타컬렉션을 만나보세요.



# RAYMOND WEIL

## GENEVE



**삼성-크라온제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맞손**

삼성전자는 크라온제과와 함께 '아이 LIKE 제트봇 AI'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삼성전자는 캠페인 일환으로 2023년형 '비스포크 제트 봇 AI'에 탑재된 '우리 아이 마중 기능'과 연계해 '안전한 하굣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베스트샵, 어린이 위한 미술관 변신**

LG전자 베스트샵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LG전자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매장에 '키즈 아트센터'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키즈 아트센터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지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린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LG전자



**롯데케미칼, '뽀로로 팝업북' 어린이의원 기부**

롯데케미칼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만든 '뽀로로 팝업북' 200여 권을 보바스어린이의원에 기부했다. '뽀로로 팝업북'은 책을 펼쳤을 때 숨어있던 캐릭터와 구조물이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환아들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심어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롯데케미칼



**IBK기업은행, 생성AI 기반 금융특화서비스 속도**

IBK기업은행은 한국경영정보학회와 지난달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생성AI 기반 금융특화서비스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주용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종원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체육국 체육협력관 이정미
- ◆한양증권 ◇신임 부사장 △재무회계부장 송우성 △복합금융부장 이대희
- ◆티몬 ◇상무 △김학중(투어비즈본부장) △김관태(라이프&푸드사업본부장) △전규경(마케팅본부장) △이수현(경영지원본부장) ◇이사 △이정민(편선&뷰티사업본부장) △권도완(운영사업본부장) △박성호(제휴사업본부장)

**부음**

▲박송자씨 별세, 이희수(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경수·종수·미옥씨 모친상 = 2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장지 충남 천안시 병천면 선산. 02-2290-9442

# 알맹이 빠진 '에드워드 호퍼' 전



홍경한의  
시시일과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는 1882년부터 1967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리얼리즘 작가이다. 황량한 도시 또는 시골 환경에서 외로운 인물을 묘사한 그의 그림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요한 절망과 소외, 나쁜 권태를 보여준다. 바쁜 도시인들의 심리적 그늘과 공허함이 '정지된 시간'에 담겼다.

호퍼의 국내 첫 개인전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개최된다. 그와 관련된 기록 4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 휘트니미술관과 공동 기획했다.

작품들은 20세기 초 미국의 생활 풍경 화가들의 모임인 애시칸파(派: Ashcan School)의 일원이면

서 호퍼의 스승이었던 로버트 헨리의 영향을 받은 인상파와 경향의 그림에서부터, 신비적 이상주의자 겸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수채화, 드로잉 등을 아우른다. 모두 160여점이다. 전시는 이를 연대기가 아닌 파리, 뉴욕, 잉글랜드 등 작가의 활동지역(여정)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눈에 띄는 작품은 긴장감 역력한 에칭(etching)들이다. '밤의 그림자'(1921), '이스트사이드 실내'(1922) 등의 작품을 통해 램브란트를 좋아했던 작가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명암대조에 의한 극적 표현을 특색으로 한다. 때문에 일부에선 그를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화파인 테네브로시(tenebrosi)로 분류한다.

전시에선 작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장부, 사진, 편지와 같은 기록물 110점도 함께 선보인다. 호퍼는 40대가 돼서야 주목을 받았는데, 30대 초반이었던 1913년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 미술전

인 아모리 쇼(Armory Show)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을 제외하곤 별이 신봉치 않아 생계를 위해 광고·출판물 삽화, 잡지 표지 디자인 등을 그렸다. 이들 자료는 호퍼의 예술이 구축되는 과정과 그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필 수 있도록 돕는다.

유화는 50여점이다. 그가 남긴 유화가 400여점인 것에 비해 다소 적다. 대표작은 당시 78세였던 아내 조세핀을 모델로 한 '햇빛 속의 여인'(1961)이다. 휴식 같은 장면 속 웅장한 모를 무상함이 감도는 게 특징이다.

다만 올 상반기 가장 기대를 모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거의 빠졌다. '해외 소장품 걸작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다. 일례로 호퍼하면 떠오르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1942)은 목탄 습작으로 나왔다. 영화 '셜리에 관한 모든 것'(2013)에 영감을 준 '객차'(1965) 등의 작품들과 대공황을 겪은 1930년대 이후의 시대상과 군상들의 쓸쓸한 내면이 짙게 묻어나는

'호텔 방' 시리즈, 1920년대 주요 작품군인 '자동판매기(식당)'(1927)와 '잡수이'(Chop suey, 1929) 역시 누락됐다. 판화, 스케치 등도 가치가 있지만 흑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할 법하다.

사실상 이번 전시는 에드워드 호퍼 '아카이브 전'에 가깝다. 전시 제목도 아카이브 전으로 바뀌어 정직하다. 전시 성격과 별개로 동시대미술을 선도해야 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굳이 4개월 동안 전관을 내주면서까지 상업적 성격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해야만 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반세기 전 죽은 망령을 소환해 오랜 기간 박제할 만큼 세상이 한가한지 되묻게 된다.

외국 유명 미술관 소장품을 돈 주고 끌어와 재탕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기획역시 긍정적으로 보기에 어렵다. 관람객 수가 미술관 운영의 주요 성과지표 중 하나임을 모르진 않으나 '브랜드 장사'는 일반 전시 기획사들이 해도 된다.

/미술평론가·LHC Larchivum 총괄디렉터

## 포스코, 美 ICCC 참가... 'K-기업시민' 모범사례 전파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

**컨퍼런스 주제 '회복탄력성 재고' 1%나눔재단 사회공헌활동 소개**

포스코가 1%나눔재단 등 다양한 기업시민사회공헌활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CC)에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2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는 미국 보스턴칼리지 경영대학 산하 기업시민연구센터(BCCCC)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지속가능성·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봉사활동·조직문화·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례 발표와 주제토론이 진행된다. 제너럴모터스 테라 다간 부사장, 웰스파고 사라리처 부사장, 포스코경영연구원 고준형 원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왼쪽 네번째)이 회사를 대표해 혁신상을 수상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장, 포스코 최영 기업시민실장 등 기업·기관·학계의 기업시민분야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회복탄력성 재고(Rethink Resilience)'다. 고준형 원장은 주제 토론 세션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포스코의 리얼밸류(Real Value) 경영을 소개했다. 리얼밸류 경영은 기업활동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

하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높이는 경영 모델이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방법론이다.

최영 기업시민실장은 '조직 내 기업시민부서 영향력 증대 방안(Grow Your Impact: Expand Your Team)'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포스코 1%나눔재단의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

최 실장은 "포스코 1%나눔재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임직원 주도 공익법인"이라며 "수혜자 선정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재단 홍보까지 기부 직원으로 구성된 150명의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대표사업 중 하나인 1%마리채(My little Charity)에서도 임직원들이 평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기부처로 등록할 수 있게 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욕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지난 2013년 11월 설립됐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3만 5000여명의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다. 설립 이래 2022년 말까지 총 855억원을 모금했다. 726억원을 우리사회에 필요한 곳에 지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차,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 점검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 캠페인 소모품 교환·보충, 항균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보다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자시스템,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점검 서비스'와 와이퍼,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

보충 서비스'에 더해 실내 항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점검 캠페인은 어린이집·초등학교 통학차량으로 현대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운티/에어로타운 등 중·대형버스를 사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일부터 8월까지 캠페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접수하면 서비스 제공 기간인 5월 1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각 지역 시도교육청 또는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등 별도 점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금호리조트, 6일 '패밀리데이 쇼' 개최

4개 콘도시설서 참여형 마술공연

금호리조트는 어린이 날을 기념해 오는 6일 전국 4개 콘도시설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고객 참여형 마술 공연 '금호리조트 패밀리데이 쇼'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호리조트 패밀리데이 쇼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 연휴를 맞아 금호리조트를 찾은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어린이 및 가족 공연 전문 마술사인 문준혁 아티스트를 비롯해 다년

간의 경력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마술 공연이다.

통영·화순·설악·제주 등 4개 콘도시의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버라이어티 매직쇼 ▲LED 버블쇼 ▲레인보우 별문쇼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파이어 효과와 LED 등을 이용한 테크니컬 매직쇼부터 비눗방울, 풍선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 마그비스피드<sup>®</sup> 액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 마그비스피드<sup>®</sup> 더블액션 액 Double Action

# 우리들의 야유회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얼마전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현수막)가 걸렸다. 현수막은 당일치기 마을 야유회 안내문구. 마침 마을회관 앞 노인들이 흠뻑 젖어있던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며 술렁였다. 지난 3년간 마을에서는 변변한 행사 한 번을 못 치렀다. 특히 여행은 꿈도 못 꿔다.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된 감정으로 마을사람 모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반가울 수밖에. 도시민들에게야 그저 소소해서 별다른 게 있겠냐 싶지만 여기서 큰 행사다.

올해는 봄이 일찍 왔다. 이전보다 열흘은 빨리 온 것 같다. 그래서 4월 초순께 모종을 내고 모내기 준비를 하는 등 분주했던 집도 많다. 이런 여행은 농번기전 막간에 즐기는 망중환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주 오랜만에 지친 심신을 달랠다고나 할까.

마을에서는 연말 전체 회의가 있고 연초에 척사대회를 열고 웃놀이 등을 즐긴다. 그리고 5월 초 마을 전체가 농번기 직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름 한철 삼복 더위에 마을 사람이 모여 다같이 밥을 먹는 날 등 대체로 네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과 한두차례 긴급한 회의가 열린다.

노인들의 기쁨이 유독 커보였다. 필자는 26년 전 마을로 이사온 후 3년째가 돼서야 마을 여행에 처음 합류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작은 녀석은 잘 걷다가도 이따금씩 산길을 걷거나 해변을 산책할 때는 안아달라고 보챘던 기억이 난다. 오전 8시 출발해서 오후 10시쯤 귀가, 젊은 나에게 힘든 하루였다. 그렇더라도 하루쯤 놀이에 빠진 이들에게 그날의 즐거움을 무엇과 바꾸랴.

“여쭙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했잖아. 여행간다니게 아들, 딸들이 용돈도 보내고.” 도시로 나가 사는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의 야유회가 반가울 터. 노인들의 웃음소리는 마을회관이며, 노인정 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 가득한 봄날이다.

마을 여행 경비의 마을 지원금을 활용한다. 우리 마을은 송전철탑이 지나기 때문에 각 가구당, 마을당 전기 송출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 일정한 정도의 지원금을 또 받는다. 그 지원금은 마을사업과 정비 등에 쓴

다. 그래서 이장과 총무는 ‘마을기업이 모범적인 곳’에서 견학을 겸하고 싶어 골머리를 싸맬 지경이다.

예전에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꽤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곳을 가본적이 있다. 다행히 용대리 황태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용대리~백담사간을 운행하는 버스회사, 황태가공공장식당, 펜션 등 여러개의 마을기업을 성공시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있었다.

수익 분배를 보면 입을 딱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수익으로 마을 도서관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준다. 또 일부는 명절날 선물세트와 수익금을 배분, 수십만원씩 나눠주는가 하면 1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해 모범적인 마을기업 사례를 보여줬다.

우리 마을에서도 노는 땅을 이용해 주말농장, 창고대여, 고구마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좀더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도 야유회 주제가 ‘모범적인 마을기업 탐방하기’로 정한 듯 하다. 모처럼 떠나는 당일치기 산책이 또 한해를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 여기서 새삼 알게 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3일 (금 3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일러놓은 만큼 성과도 좋다. 48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빼내도록. 60년생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갖도록. 72년생 급여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84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린다.
- 소** 37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터. 49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61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돕는다. 7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모른다. 85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 호랑이** 38년생 양손의 떡 중 하나는 양보해야. 50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62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르다. 74년생 다정했던 동료와 불화를 조심하자. 86년생 병법상의 최상책이 삼십육계라는데.
- 토끼** 39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51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63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75년생 이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87년생 세 사람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만한 사람이 있다.
- 염** 40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 52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64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도전. 76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8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공상맞다.
- 뱀** 41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53년생 행한 적선이 복으로 돌아오다. 65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올 자가 없으니 더 노력. 77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89년생 부모님이 그리워도 될 수가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 말** 42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54년생 민거나 말거나 남의 뒷 얘기 하지 않도록. 66년생 부조화는 불안정을 부른다. 78년생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90년생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간단다.
- 양** 43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독신보다는 가정을 이루도록. 55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흉도 드러난다. 67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79년생 명상으로 돌아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91년생 뒷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르진다.
- 원숭이** 44년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마라. 56년생 바람이 불어도 기본은 흔들리지 말자. 68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 80년생 남쪽으로 길을 떠나보면 생각도 변한다. 92년생 어려운 일이 임시변통으로 우선은 해결.
- 닭** 45년생 내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57년생 재한할 때가 아니라 시간을 가져보자. 69년생 이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81년생 오늘 걸으면 내일 뛰지 않는다. 93년생 모아 둔 돈은 없으나 산 입에 거미줄 치라.
- 개** 46년생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으니 근심 말자. 58년생 기름에 단비가 내린다. 7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 시작. 8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4년생 달걀을 쌓은 것처럼 시기가 위태로우니 투자는 금물.
- 돼지** 47년생 사촌의 자식 고뇌를 보며 무자식 상팔자를 실감. 59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71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자. 83년생 혁신적인 생각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95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 대전 ‘친환경 골프장’ 조성, 지역민과 협의해야



**기지수첩  
원승일  
(전국본부)**

# 덴마크 코펜하겐은 쓰레기 매립장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관광명소이자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 중이다.

# 스웨덴 말뚝은 쓰레기 매립장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모두 님비(NIMBY), 즉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내 구역에 짓지 말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 친환경 시설로 관광 명소가 된 해외 사례들이다.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환경시설 밀집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이어 앞으로 제2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이전도 앞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불이익, 생활환경 개선 목소리가 크다. 이곳에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1500억을 들여 최대 27홀 규모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대전시 공공기관이 운영해 시민들이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암동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처럼 대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친환경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공청회 등 지역 주민들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 계획부터 발표한 점도 문제다. 정책도, 시책도 추진 전에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홍보한

다. 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다량의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고, 녹지가 줄어드는 동시에 잔디 관리를 위해 계속 물을 뿌려야 한다. 친환경 골프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골프장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처리시설에 조성되는 만큼 향후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지, 골프장이라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골프 인구가 늘고 있고, 대중화된 공공 골프장도 필요하다. 다만, 코펜하겐, 말뚝처럼 골프장 외 열병합발전소, 생태공원 등의 대체제로 명소가 된 사례가 있다. 이장우 시장이 이미 답을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이들 사례에 눈을 돌려 벤치마킹 해 볼만 하다. 친환경 골프장이든, 친환경 공원이든 결국 대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사업 추진 전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필요해 보인다. /won@



## 김상회의 四季 소나무 예찬

소나무 말이 나오다 보니 봄철 화재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소나무에 대해 깊은 애정이 깎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명절음식으로 소나무 꽃가루를 버무려 만든 다식은 맛도 같지만 기운을 보호해 주는 약성을 지니고 있어 간식거리가 다양치 않았던 때 매우 귀한 다과였다. 솔잎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송편이 있게 만든 일등공신이고 역시 약재로도 훌륭하여 선조들의 자랑거리 전통약재서인 ‘본초강목’에도 그 응용법이 자세히 나온다.

소나무의 각 부분은 식자재인 동시에 약재로서도 그 효과가 겹칠하여 솔잎을 가늘게 썬 뒤 갈아서 날마다 밥 먹기 전에 술과 함께 먹거나 끓인 물로 죽을 만들어 먹으면 이보다 더 훌륭한 건강식이 없다. 술을 만드는 데도 최상의 재료이기도 하여 소나무 옹이나 앞의 재료에 따라 송순주(松筍酒)·송엽주(松葉酒) 또는 송하주(松下酒)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송하주는 동짓날 밤에 솔뿌리를 넣고 빚는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만든 술을 소나무 밑을 파고 향아리를 잘 봉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낙엽이 질 무렵에 먹는 술이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신선들이나 즐겨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고품격 술이 아닐 수 없다. 송진은 다방면에 약효가 있어 한약재의 단골소재이며 송진이 땅 속으로 들어가 천년이 지나면 호박으로 변한다고 한다. 호박은 고가의 보석으로 결혼하는 새색시의 귀한예단품중 하나이기도 했다.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송연(松煙)이라 해서 이는 좋은 먹을 만드는 재료라 한다.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다. 무엇보다 소나무는 삼장생의 하나로서 품격 높은 동양화에 반드시 보이며 고고하고 향기로운 절개 높은 기상을 표상한다. 소나무를 존경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높이는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8 9 6		
6 1			5 4		
5 7 4		2			
2					9
		8	6 7 2		
	3 7		9 6		
	2 9 6				

		2 4			3
8			6		9
7					2
	4		5		8
5					
1					4
		7 3			1
8			7 2		

**정답**

2	4	1	8	9	6	8	9
8	9	7	9	6	2	1	2
1	9	6	8	2	2	8	7
9	2	2	9	1	8	7	6
7	6	8	2	9	8	9	2
9	1	8	2	6	7	2	9
8	8	7	9	2	2	1	9
2	2	9	6	8	1	9	8
6	9	1	8	7	9	8	2

8	9	2	2	1	9	8	6
1	6	8	9	8	9	2	7
9	7	2	6	2	8	8	1
2	2	7	8	1	9	6	8
6	8	9	8	9	2	1	2
9	1	8	7	6	2	8	9
2	9	1	9	8	6	7	2
7	2	6	2	9	8	9	1
8	8	9	1	2	7	2	6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사계절 문화 흐르는 서울... 축제일수 18일→75일로 확대

서울문화재단 '아트페스티벌 서울' 비보잉·거리예술 등 라인업 발표 5일~7일 송현광장서 서커스 공연 10월 14일~15일에 발레공연 펼쳐 서울광장·잠실체육관 등서 행사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서울시

올해 서울 곳곳에서 서커스(봄), 비보잉(여름), 거리예술(가을), 융합예술(겨울) 페스티벌이 사계절 내내 펼쳐진다. 축제 일수는 18일에서 75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문화재단은 2일 '아트페스티벌 서울'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아트페스티벌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들을 하나로 모은 재단의 예술축제 통합 브랜드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 아트페스티벌 서울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에서 열린 각종 문화예술 공연에 예술가 1241명, 시민 13만782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올해 '콘텐츠 강화', '장소 다양화', '축제 기간 연장'을 골자로 아트

페스티벌 서울을 개편했다.

우선 재단은 서커스와 발레 축제를 확대 편성했다. 작년까지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됐던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올해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개최된다. 재단은 "시민의 걸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며 "예년과 달리 모든 공연을 야외에서 실시해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5~7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한국·프랑스·캐나다를 포함 국내외

단체의 서커스 작품 14개와 서울스테이지11의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올 10월 14~15일 한강 노들섬에서는 발레 공연이 펼쳐진다. 재단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을 주제로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유니버설발레단과 발레STP협동조합이 합동 공연을 할 예정이다.

축제 장소는 서울광장, 잠실실내체육관, 문화역 서울284 등으로 다양하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운영된다. 세계적인 공연단과 한

국의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재단은 강조했다.

9월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열린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공연을 일반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울생활예술주간 선포식, 서울시민합창단, 동행오케스트라, 25개 자치구 대표 생활예술 동호회 경연 등이 포함된 열린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

했다. 문화역 서울284에서는 11월 10일~12월 13일 융합예술페스티벌인 '언폴드 엑스 2023'이 진행된다. 재단 융합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5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시·심포지엄·시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시민들의 축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페스티벌 기간도 종전 18일에서 75일로 약 4.2배 늘렸다. 재단은 계절별 대표 축제로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5~7일,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비보이페스티벌'(6월 3일, 노들섬) ▲'서울거리예술축제'(9월 30일~10월 1일, 서울광장 일대)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2023'(11월 10일~12월 13일, 문화역 서울284)을 꼽았다.

이 대표는 "단순히 재단의 축제를 결합하는 차원을 넘어 사계절 내내 서울 시민과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합 브랜드하고 알릴 것"이라며 "문화도시, 글로벌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독립유공자 후손 120명에 장학금 300만원

서울시-서울장학재단 증손자녀 이하 후손, 15일까지 접수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 120명에게 장학금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사업은 국가 지원이 부족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 법률상 독립유공

자 후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어 그간 증손자녀 이하 후손은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 재학생 등에 해당하거나 당해연도 서울장

학재단의 다른 학업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장학생들에게 연간 3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120명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e서울사랑상품권 7% 할인 판매

총 50억 발행... 온라인몰서 사용가능

서울시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행규모는 총 50억원이다. 기존 e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온라인전용판(e서울사랑샵)과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정의 달처럼 소비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쇼핑전용 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상시 사용되는 배달전용은 매달 정기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는 e서울

사랑샵이다. e서울사랑샵은 서울시와 11번가가 제휴·운영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전용판으로, 7만여 소상공인 상품 약 2700만개를 판매하고 있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앱에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다. 1인당 총 1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상단에 e서울사랑상품권 표시가 있다면 이용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 해드려요”

경기도, 옛 팔달 도청사에 지원센터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3월 임시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옛 도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정식 개소했다.

도는 GH 직원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

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모두 25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이전했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교육부, 도서읍면 등 학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서 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안전체험시설을 갖춘 체험차량과 안전전문가(소방관·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화재안전, 지진대피, 교통안전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7년 소방안전체험교육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해 교육내용을 더욱 내실화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5 | 해질 / 19:23

5월 3일 (수) 음력 : 3월 14일

수도권 날씨 13~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25, 동두천 10/25, 가평 9/26, 파주 8/24, 서울 13/25, 양평 12/25, 인천 13/22, 수원 14/24, 용인 14/24, 백령도 10/17, 평택 11/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美 25개 방산대표단, 대만 방문...드론 공동개발 기회 모색
- ▲ 우크라이나 선수 출전에 세계유도선수권 참가 거부 /사진 뉴스스

- ▲ 中 노동절 '황금연휴'...민족 대이동에 항공 승객 500% 폭증
- ▲ 프랑스, 노동절에 불 붙은 '연금법' 시위...230만여명 참여



- ▲ 유엔 난민기구, 수단에서 80만명 이상 난민 발생 경고 /사진 뉴스스
- ▲ 호주중앙은행, 한 달 만에 기준금리 25bp 깜짝 인상



상권끼리 손잡으니  
행사가 축제로  
관광객 발길  
너



Life

CJ제일제당  
'퀴진케이' 운영  
한식셰프 키운다  
L2



# “삶과 가족 담긴 10가지 앨범... ‘사랑 에너지’ 전해지길”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 배기표 RMK 대표

온통 사랑 이야기다. ‘사랑쟁이’ 배기표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리아(RMK) 대표(사진)가 삶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10집의 싱글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지난해 4월 첫 싱글 앨범 ‘Thank you for my life (내 삶이여! 감사해요!)’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1년여 만에 10개의 곡으로 완성됐다. 삶에 대한 감사함에서 시작된 노래는 아내와 아이들, 친구, 부모님을 거쳐 나 자신을 위한 세레나데로 끝이 난다.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배기표 대표는 지난 2019년에는 아들을 위해 쓴 동시가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시인이다. 동시집 ‘로봇청소기’를 비롯해 ‘사랑쟁이 아빠편지’ ‘자유여행 편지’ 등 총 8개의 저서를 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가 지난해 새롭게 기획한 프로젝트명은 ‘My Family & Life & Love (나의 가족 & 나의 삶 & 나의 사랑)’. 총 10개의 싱글 앨범은 모두 시인인 배 대표가 직접 작사했고, 뮤지컬 작곡가 김혜성 씨가 가사에 맞게 곡을 썼다. 이제까지 7개 앨범이 나왔고, 나머지 3개도 이달 중 음원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1년여 만에 음유 시인으로 돌아온 배 대표를 다시 만났다. 그는 지난해 인생의 전반전을 막 끝내고 올해 새로운 후반전을 열고 있다고 했다. 배 대표는 “삶이라는 건 감사함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마음을 그동안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 앨범들을 내게 된 계기는.

“지난해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질 기회도 있었다. 많은 것을 내려 놓으며 느낀 것은 ‘감사함’이었다. 삶은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넘치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자락에서 나를 지켜낸 것은 귀한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비로소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첫 시작인 1집 ‘내 삶이여! 감사해요!’는 이렇게 삶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숭고함에 깊은 고마움을 표현한 곡이다.”

### - 이후 곡들도 소개해 달라.

“2집 ‘Present (선물)’는 소울메이트인 아내를 만난 첫날의 설렘을 떠올리며 썼고, 스윙풍의 곡으로 담겼다. 3집 ‘Dear.Been (빈에게)’은 큰 아들 ‘경빈’에게 보내는 아빠의 세레나데다. 매일 아침을 초록빛 희망으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따스한 감사로 마무리하길 바라는 기도를 담았다. 4집 ‘사랑쟁이 아빠와 아들’은 경빈이와 함께 부른 뜻 깊은 듀엣송이다. 5집 ‘울엄마’는 언제나 나를 믿어주시는 엄마의 헌신과 사랑에 바치는 노래이며, 6집 ‘수성못에서’는 어릴 적,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나눴던 추억을



8개 저서 발간, 10개 싱글앨범 발매한 음유시인  
삶·가족에 대한 사랑 노래... 아들과 함께 부르기도  
프로 뮤지션들 참여... ‘기적의 선물’ 된 프로젝트

함께 앨범 만들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느껴  
모든 곡 LP에 담아 소중한 인연에 선물하고파

담은 노래다. 7집 ‘Cheers(건배)’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바치는 곡으로, 시원한 브라스 밴드의 연주를 통해 진한 우정을 표현했다. 8집 ‘Evergreen (에버그린)’은 하나뿐인 딸 ‘선빈’을 위한 곡이다. 어느 날 아침, 딸의 머리를 빗어 주다 문득 딸의 결혼식을 떠올렸고,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할 마음을 상상하며 쓴 노래다. 9집 ‘구기동 연가’는 소중한 막내 아들 ‘규빈’을 위한 곡이다.”

### - 가족들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

“경빈이와 함께 노래를 하고, 그 시간들을 담은 소중한 추억을 갖게 된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었다. 어머니는

‘울엄마’라는 곡을 듣고 감동을 받아 많이 우셨다고 한다. 아버지께 곡을 들려드리며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사랑이 나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랑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모두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 왜 가족이고, 삶인가.

“삶은 자신의 소명, 즉 태어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지난해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나는 가족과 삶 그리고 친구들과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마음을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다.”

‘My Family & Life & Love’는 배 대표가 개인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지만, 수많은 프로 뮤지션들이 참여해 수준급 앨범을 만들어냈다. 배 대표가 직접 쓴 가사에 뮤지컬 감독 김혜성씨가 작곡을 했고 프로듀서 박세현씨가 편곡을 맡았다. 뮤지컬 배우 리준이 가이드 보컬로 참여했고, 국악인 김정훈도 객원 멤버로 힘을 보탤다. 모든 노래는 배 대표가 직접 불렀다. 기교를 덜어낸 수수한 목소리가 수준급 음악과 묘하게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만든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삶이 준 기적의 선물’이라고 했다.

### -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가.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되며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들도 이 작업을 함께 하며 힘든 시기를 즐겁게 버텨내고, 이 프로젝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됐다는 얘기를 한다. 고맙고 귀한 인연들이 씨줄날줄 엮여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었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다.”

### - 특히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

“최근 마지막 싱글 앨범 ‘My Way (나의 길)’가 나왔다. 특별히 ‘본조비’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곡이다. 록 음악이라니 스스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인 만큼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자고 생각했다.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며 그 길을 이끌어온 나 자신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 - 앞으로 음반은 어떻게 활용하나.

“모든 곡을 모아서 레코드판(LP)으로 제작하고 있다. LP 자켓 디자인도 직접 하려고 여러가지를 구상 중이다. LP가 나오면 소중한 인연들에 한분 한분 직접 선물하고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가수로 활동하거나 콘서트를 열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손사레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10개의 음반은 어찌면 우리 모두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 곡에 담긴 사랑의 에너지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서 ‘세종대왕 태실 태봉안 행사’ 재현행사  
▲루체른 심포니, 4년 만에 내한...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협연 /사진 뉴시스

▲한국, 2023·2024·2026 쇼트트랙 월드컵 개최  
▲프로농구 ‘고양 캐롯’...데이원 점퍼스로 구단명 변경



▲프로야구 삼성 오승환, 19년 만에 ‘선발투수’ 등판  
▲김하성, 홈런 커튼콜...‘MBL 통산 100타점 돌파’ /사진 뉴시스